

철학사

76. 논리실증주의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칸트와 밀 같은 사람들의 과학주의는 과학적 방법, 즉 가설 연역적 방법의 보편화, 다시 말해 과학적 설명 방식의 보편적 확장을 추구했는데, 이는 버트런드 러셀에 의해 다시 계승되어 그의 논리적 원자론에서 훨씬 더 기술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러셀의 논리적 원자론은 원자론적 형이상학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논의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논리철학논고』에서 이와 매우 유사한 맥락으로 과학주의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논리실증주의는 19세기 실증주의의 강조점을 계승합니다. 19세기에 칸트는 자신의 제3 실증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 단계에서는 과학적 객관적 경험적 데이터를 다루고 설명력을 갖춘 경험적 일반화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논리실증주의는 객관적 경험적 데이터에 대한 실증주의적 강조와 과학의 통일성에 대한 실증주의적 관점을 계승하면서도, '논리'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언어의 논리적 사용과 논리적 형식에 대한 러셀의 강조점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20세기 논리실증주의는 칸트, 밀, 마르크와 같은 인물들에게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10년대와 20년대에 활동했던 비엔나 학파가 이 운동의 유럽 대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에서의 논리 실증주의는 비엔나 학파에서 파생되었지만, AJ 에이어의 저서 『언어, 진리, 논리』를 통해 대중화되었습니다.

비엔나 학파에는 모리츠 쉐LIK과 루돌프 카르납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며, 비엔나 학파의 주요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비트겐슈타인 역시 옥스퍼드를 중퇴하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후 이 학파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비엔나 학파의 진정한 중요성은, 다소 순진한 경험주의에서 벗어나 감각, 자료, 물질적 대상을 구분하면 현상주의적 인식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초기 경험주의 운동을 발전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경험적인 진술이라 할지라도 항상 직접적인 경험적 검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간접적인 방식이나 다른 주장들과 결합하여 그 진술이 갖는 논리적 함의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학파가 있었습니다. 비엔나 학파는 바로 이러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비엔나 학파와 AJ 에이어 학파 모두에게 있어, 그 토대, 즉

그들에게 독특한 영향력을 부여했던 핵심적인 토대가 있었고, 그 토대의 붕괴는 논리실증주의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차별점은 의미에 대한 검증 가능성 이론이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진리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록 '검증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진리에 대한 이론도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의 의미에 관한 이론, 즉 언어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 언어가 기본적으로 인지적 용도와 비인지적 용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이론을 비교적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인지적 발화에는 감정적인 외침, 질문, 외침, 표현적인 진술 등 온갖 종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지적 진술은, 네, 인지적 진술은, 종합적 진술과 분석적 진술,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는 마치 데이비드 흄의 이론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종합적 명제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경험적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문제입니다. 반면 분석적 명제는 술어가 주어 안에 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주어와 술어의 논리적 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형식적 의미만을 지닙니다. 후자에 속하는 명제로는 정의, 항진명제, 그리고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라서는 수학적 명제가 있습니다.

A는 A가 아니다와 같은 사고 법칙의 논리적 형식을 가진 모든 명제는 정의에 포함되고, 항진명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밀이 생각했던 것처럼 수학적 명제가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분석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들도 포함됩니다. 검증 가능성 이론은 사실적 명제의 의미에 관한 이론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슈툼프는 사실 진술의 의미는 그 진술을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이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의미는 곧 그 진술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이 설명이 그다지 명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경험적 절차, 즉 경험적 검증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험적 진술의 의미는 그 진술이 참조하는 대상, 즉 경험적 데이터에 대한 참조에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실제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이든, 잠재적인 경험적 데이터이든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검증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진술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참조하는지 말하려면 데이터를 참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진술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 있어 검증 방법은 필수적입니다. 이제 그 이후의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판의 서문을

읽어보시면(제 서문은 여러분 것보다 더 낡았겠지만), 에이어가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을 본다”라는 진술은 직접 검증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원한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과학자들의 몫입니다. 검증 방법을 안다면 당신도 그 명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의 관심사는 단지 그 명제가 사실적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반면에 간접 검증은 주어진 명제만으로는 추론할 수 없는, 직접 검증 가능한 명제를 수반하는 다른 전제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열쇠는 철로 만들어졌다.”라는 명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 열쇠는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열쇠는 직접적으로 검증 가능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열쇠가 철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어떤 금속인지 알아낼 방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적인 전제들을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가능한 관찰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열쇠가 철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이죠. 카르납은 과학에서 간접 검증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게 한 가지 차이점입니다.

에이어는 첫 장에서 ‘실제로’와 ‘실제로’를 구분합니다. “내가 눈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섯이 달의 반대편에서 자란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21번째 생일에 빨간 드레스를 입었다는 사실처럼 말이죠. 다시 말해, 만약 우리가 달의 반대편에 갈 수 있다면, 어떤 관측 절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클레오파트라 시대로 돌아가 그녀의 21번째 생일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녀가 21번째 생일에 빨간 드레스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진술은 원칙적으로 검증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검증 가능성 원칙은 역사적 진술, 미래에 대한 진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진술을 인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원칙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험적 검증이 전혀 불가능한 종류의 진술입니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재에 대한 형이상학적 진술 그것은 모든 현상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체로 실재'라고 말하는 이유는, 에이어의 형이상학 제거에 관한 첫 번째 장을 읽어보면, 그가 제거하고자 하는 형이상학이 헤겔주의자인 F.H. 브래들리의 형이상학, 즉 실재와 그것의 다양한 현상적 양상을 구분한 형이상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재 그 자체는 경험적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이상학적 주장 자체가 배제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현상들은 물론 경험적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제되는 형이상학은 사물 그 자체와 사물에서 파생된 사물, 즉 근본적인 실재와 현상의 세계를 구분하는 형이상학입니다.

자, 세 번째 구분이 있는데, 그는 첫 번째 장 37페이지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바로 강력한 검증과 약한 검증의 구분입니다. 강력한 검증과 약한 검증.

확실한 검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확신을 줄 것입니다. 기초주의자들이 원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약한 검증은 확률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에이어는 간접 검증, 실제 적용보다는 원칙적인 검증, 그리고 강한 검증보다는 약한 검증을 허용하는 검증 가능성 원칙을 정의하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검증 가능성 원칙이 어떤 반응에 직면했는지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여 년 만에 비판에 직면하여 이 원칙을 재정립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협소한 경험적 기준에 대한 비판이었죠. 그리고 결국, 바로 이 검증 가능성 원칙에 대한 비판이 논리 실증주의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초기 비판 중 하나는 경험적 일반화는 원칙적으로도 검증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반화에는 항상 접근 불가능한 더 많은 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어떤 진술이든 검증 가능성 원칙에 따라 사실적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증 가능성 원칙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경험적 일반화는 원칙적으로 항상 반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사례를 하나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 일반화는 틀린 것이 됩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 크레타 토착민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일반적인 진술을 반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신이 단순히 명제, 즉 사실이라고 주장되는 진술이 검증 또는 반증이 가능한 것이기를 바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증 가능성이나 반증 가능성,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그것이 경험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단순히 반증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적 일반화는 검증할 수는 없지만 반증할 수는 있습니다. 특정 사례에 대한 개별적인 주장은 검증할 수는 있지만 항상 반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라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항상 반증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찾을 때마다 숨어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따라서 검증 가능성과 반증 가능성 모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비판은 검증 가능성 기준 자체의 지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실증주의자들은 모든 진술은 종합적이거나 분석적이며, 사실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말합니다.

검증 가능성 원칙의 진술은 무엇일까요? 검증 가능성 원칙은 사실적 진술일까요? 그것이 바로 의미의 진정한 의미일까요? 아니면 형식적 진술일까요? 분석적 진술 일까요? 검증 가능성 이론은 경험적 절차를 통해 검증 또는 반증될 수 있는 경험적 진술이 아니라는 점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1950년대 대학원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역사 전반에 걸쳐 사람들이 '의미'라는 단어를 항상 다른 의미로 사용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이것이 사실적 의미에 대한 경험적 서술이고, 유일한 사실적 의미가 경험적 대상, 즉 경험적 자료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실체를 가리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실재하는 형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여겼습니다.

신학자들은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진술이거나, 사실이 아닌 진술입니다.

에이어는 요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사실 진술의 의미에 관한 사실 진술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방법론적 규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실증주의자가 방법론적 목적으로 채택하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 규칙을 채택하고 싶지 않다면, 채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검증 가능성 원칙은 철학적 담론에서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

알 겠죠? 경험주의자가 되고 싶다면, 실증주의 자가 되고 싶다면, 이 원칙은 따르기에 좋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증주의 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 당연히 이 원칙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해서 소란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시 겠죠? 이걸 정의라고 하기엔 좀 부족해요. 오히려 자의적인 원칙에 가깝죠. 경험 과학에서 흔히 쓰이는 원칙이라고 해서 모든 사실 진술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는 세 번째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증 가능성 원칙은 경험 과학에서 작동하는 원칙이라는 가정 하에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 철학의 발전으로 과학이 순전히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경험 과학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조차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발전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자연 과학에서 주관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발전들이었습니다.

선형적 틀 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발전들 . 자연과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 혁명. 가설 연역적 방법의 지나친 단순성을 거부하기 시작한 발전들.

그리고 그중 세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노우드 헨슨이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그의 책 제목은 《발견의 패턴(Patterns of Discovery)》입니다.

예일대학교 에서 과학사 및 과학철학을 가르쳤습니다 . 그의 역사 연구는 모든 관찰에는 이론이 내포되어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 에 대한 매우 정교한 이해가 없어도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요.

과학자는 그저 주변을 서성거리며 온갖 데이터를 훑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는 작업 가설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따라서 관련 데이터의 중요성은 그 작업 가설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는 결국 어떤 이론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다시 말해, 어떤 데이터를 고려할지 결정하는 선행하는 개념적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즉, 이론이 반영된 관찰인 셈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아마 여러분에게 더 익숙할 것입니다. 토마스 쿤의 과학 혁명 구조에 관한 연구입니다.

1950년대에 출판된 이 책에서 그는 과학사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이 훨씬 더 큰 개념적 패러다임의 일부이며,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때 과학 혁명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우주론에서 코페르니쿠스 우주론으로의 변화, 즉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요점은 패러다임 내에서도 과학적 지식이 누적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이 존재한다면, 특정 이론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론들은 패러다임에 의해 제시된 것이지만요. 하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면, 완전히 다른 설명 체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패러다임 전환은 경험적 증거의 무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계 내부에서, 종종 비경험적 이유로,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기존 패러다임이 설명력을 결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복잡해서 더 단순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

따라서 토마스 쿤은 순수 객관적 경험주의가 과학을 지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 번째 예는 영국에서 가르쳤던 폴란드 출신의 과학 철학자 마이클 폴라니입니다.

마이클 폴라니는 자신의 연구를 두 권의 주요 저서, 즉 《암묵적 차원》과 《개인적 지식》에서 발전시켰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제목이 어느 정도 의미를 드러냅니다. '암묵적 차원'은 경험적 연구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인간 지식의 다양한 암묵적 측면이 존재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일상적인 시각에서 우리는 주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딱히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죠. 누군가 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제가 이쪽을 보니, 데이비드가 아직 이쪽에 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주변적인 인식은 항상 존재합니다.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전체적인 맥락의 일부인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이야기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지식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그는 지식의 개인적 차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기 부여, 연구 주제 선택, 선택성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인격적이라는 견해를 직접 시험해보고 싶다면, 과학자에게 왜 과학에 종사하는지 물어보세요. 저는 예전에 화학자인 친구에게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화학인가요? 그리고 화학에서 왜 그런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미적 판단이나 다른 가치 판단을 듣게 될 겁니다.

즉, 항상 개인적인 차원이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이 예측 불가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개인적인 차원이 무엇인지, 혹은 특정 과학 연구를 이끄는 사회경제적 차원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플라니를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파이어아벤드가 있는데, 그는 과학을 관습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과학 이론은 과학자들이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관습적인 방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대주의적인 관습주의. 과학은 우리에게 현실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이것이 과학에서의 반실재론이다.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이어진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모든 과학적 설명이 순전히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설명이며, 일반적인 법칙이나 경험적 일반화에 기반한다는 견해, 즉 과학적 지식이 항상 경험적으로 검증되었거나 적어도 원칙적으로 검증 가능하다는 견해가 거부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주의 라는 명제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철학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입니다. 슈툼프의 저서에서 읽어보실 수 있는 네 번째 반론도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은 이미 읽어보셨을지도 모르고, 읽어보셨기를 바랍니다만, 하버드 철학자 W.V. 콰인을 소개합니다. 그의 유명한 논문, '경험주의의 두 가지 교리'는 논리 실증주의의 몰락에 획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험주의의 두 가지 교리 중 하나가 바로 환원주의입니다.

환원주의. 모든 지식을 경험적 일반화로 환원하려는 시도. 검증 가능성 원칙은 그런 의미에서 환원주의적이다.

모든 사실적 진술을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진술로 환원하려는 시도, 즉 환원주의입니다. 그는 관찰이 순전히 객관적이고 이론에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 때문에 이를 거부합니다.

경험주의의 두 번째 교리는 그가 분석-종합 이분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분명히 검증 가능성 원칙은 어떤 명제는 종합적이고, 어떤 명제는 분석적이며, 이 둘은 결코 만나지 않는다는 견해에 달려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범주이다.

이분법. 논리적으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명제. 그리고 콰인은 그 이분법이 무너진다고 주장 한다 .

그것은 맥락에 따라 정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그의 예시는 아니지만) "신은 선하다"라는 명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 명제는 표면적으로는 실증주의자들이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싶어하는 사실적 명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어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할 것입니다.

사실적인 진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기독교 담론의 맥락에서 볼 때, 그것은 일종의 경험적 사실 진술로 의도된 것일까요? 오히려 신학적 관점에서 분석적인 진술에 가깝지 않을까요? 유대-기독교 전통뿐 아니라 플라톤 전통에서도 '신'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신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맥락에서 '신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석적인 진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 양쪽 모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순수 경험주의자가 '신'이라는 단어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은 중립적이고 사실적인 진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종교에서 '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닌다면, 그것은 바로 선(善)으로서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콰인은 다양한 경우에 이러한 현상을 인식하고 이분법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지식을 버트런드 러셀식 연역 체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분리 가능한 명제들의 집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그런 것이 아닙니다 .

지식은 연역적 체계를 모델로 삼아서 안 됩니다. 지식은 오히려 믿음의 그물망에 가깝습니다. 물론 연역적 체계는 마치 군사 작전 처럼 정확하게 한 명제에서 다른 명제로, 또 다른 명제로, 계속해서 아래로 나아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논리적 연역. 반면에 신념의 그물은 서로를 뒷받침하는 명제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엮여 있는 그물과 같으며, 이러한 엮임은 연역적 체계로 엄밀하게 공식화할 수 없습니다 . 그것은 우리가 구성하는, 서로 연관된 가설들의 그물입니다.

즉, 우리가 보유한 지식 체계는 일관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여기서 일관성이란 지식이 통일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또한, 지식 체계는 자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내적으로 자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류가능주의적 관점입니다. 사고의 패러다임적 특성 때문에 우리가 다소 잘못된 패러다임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상호관계의 전반적인 패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가능주의와 정합성이라는 두 가지 정당성 외에도, 그는 신념 체계에 대한 실용적인 정당성을 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실용적인 정당화 근거가 과학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과학적 가설의 패턴이 채택되고 아마도 옳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이 유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연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는 실용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분석철학과 종합철학의 이분법을 거부한다면, 실증주의 체계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비판은 비트겐슈타인 자신에게서 나왔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초기 저서인 『논리철학논고』에서 본질적으로 러셀 유형의 논리적 원자론자였으며, 검증 가능성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1945년에 두 번째 주요 저서인 『철학적 탐구』를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작품, 『철학적 탐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이전 작품에 나타난 실증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비판합니다.

하나는 그가 '의미에 대한 그림 이론'이라고 부른 검증 가능성 이론이 명확한 의미를 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검증 가능성 이론이 무의미한 것처럼 들리죠. 같은 비판입니다.

그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덧붙여, 이상적인 논리 언어에 대한 고집, 즉 러셀이 원했던 종류의 이상적인 논리 언어, 다시 말해 원자적 명제가 원자적 사실을 지칭하는 언어에 대한 고집은 너무 인위적이라고 불평합니다. 너무 인위적이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그런 협소한 환원주의적 틀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입니다. 콰인의 비판과 같은 맥락이죠. 언어는 그런 좁은 틀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반면, 일상적인 언어 사용, 즉 일반인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심지어 과학자들이 과학 용어가 아닌 일반적인 언어 사용 방식을 살펴보면 훨씬 더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지적 언어와 비인지적 언어, 또는 인지적 언어라 하더라도 사실적 언어와 형식적 언어라는 이분법으로만 나눌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은 결국 수 세기에 걸친 시행착오와 선별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고, 그 가치를 수 세기에 걸쳐 검증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가 하는 일은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 유희나 언어 사용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언어 유희를 펼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콰인의 주장을 예시로 들었듯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구절은 종합적 진술로도, 분석적 진술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진술이 특정한 목회적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슬픔에 잠긴 과부를 위로하려는 목사가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 맥락에서 사용된 표현은 단순히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것을 말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합니다. 또는, 반대로 정의나 동어반복을 제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언어는, 제가 말하려던 대로, 사회적인 또는 전원적인 종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다양한 언어 게임이 있잖아요. 삶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게임들 말입니다 .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분석은 논리적 분석이 아니라 기능적 분석입니다. 우리의 좁은 실증주의적 틀을 강요하는 언어의 논리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일상 담론에서 언어가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분석입니다.

어쩌면 비트겐슈타인이 수학자이자 과학자에서 인문학 애호가로 변모한 것 같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그가 해외에 있는 동안 문학 작품을 좀 읽은 것 같기도 하고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언어 게임의 다양성. 그리고 단순히 경험적이거나 분석적인 방식 외에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방식으로 지평을 넓힌 것이 결국 영국 철학계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중반쯤에는 일상 언어 철학이 영국 대학에서 지배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학적 실증주의는 15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철학적 반발들이었죠. 게다가 제2차 세계 대전도 있었습니다.

서구 문명이 제2차 세계 대전의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언어에 대한 실증주의적 분석이 의미 면에서 얼마나 빈약한지 깨닫게 된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기대치가 넓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AJ 에이어의 책을 읽으면서 드러날 것입니다 . 그의 자서전에서 발췌한 몇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러한 영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단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몇 년 전에 그의 자서전을 읽고 큰 흥미를 느꼈는데,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그가 영국 방첩 기관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독일 점령하의 프랑스에서, 나중에는 버뮤다에 있는 초기 컴퓨터 기반 분석 기지에서 독일 암호 해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저를 가장 매료시킨 것은 제가 공군 무선 기술병으로 버뮤다에 있었던 시기와 같은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킨리 비행장에서 해밀턴 항구의 한 섬으로 파견되어 장비 정비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군이 점수한 호텔을 본부로 삼고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곳에는 민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이

군에 의해 이 비밀 프로젝트에 동원된 민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정비하는 동안 그들은 그저 민간인이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AJ 에어도 그중 한 명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기에 그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을 읽는 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마치 밤에 스쳐 지나가는 배처럼, 혹은 해밀턴 항구를 향해하는 배처럼 서로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그는 책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손 으로 썼는데 , 이 책은 두 손가락으로 서툴게 타자해서 냈어.

그게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결국엔 쓸만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죠. 다만 첫 장은 학술지 '마인드'에 실린 기사를 각색한 거예요.

나는 초고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천천히 글을 썼다. 나는 만족했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용기를 얻었다 . 하루 작업으로 300단어 분량의 한 페이지만 나와도 만족스러웠다. 좋아.

그리고 저는 하루 8시간 동안 10페이지를 쓸 수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1 페이지, 즉 300단어를 기준으로 삼았죠. 만약 제가 매일 이 정도를 해낼 수 있었다면, 1년 반이 아니라 6개월 조금 넘는 기간에 책을 완성했을 거예요.

글의 분량이 6만 단어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 중 몇몇 분들은 그 길이에 대해 의아해하셨습니다. 이렇게 적은 단어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매일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주 막히곤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

저는 열정을 담아 글을 썼지만, 동시에 제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책이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책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깊이보다는 명료함을 택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제외하면, 그 안에 담긴 생각들은 독창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비트겐슈타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빈 학파의 실증주의 사상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게다가 흘과 러셀에게서 배운 환원주의적 경험주의도 있었죠. 뭐, 놀랄 일도 아니지만요. 그리고 놀랍게도, GE 무어와 그의 추종자들이 제시한 분석철학적 접근 방식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GE 무어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현실주의자였지, 현상주의자는 아니었죠. 하지만 에이어는 그런 점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여전히 현상주의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엄격한 논리적 분석보다는 개념적 분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에이어의 책에서는 러셀과 비트겐슈타인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논리적 원자론을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분석 방식은 실패작이죠.

하지만 여기에 더해 무어는 개념 분석가이면서도 경험주의자로서, 분석적 진술과 종합적 진술을 마치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범주인 것처럼 끊임없이 구분합니다. 관념론을 반박하면서 그가 제시한 "존재한다는 것은 인식되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떠올려 보세요. 따라서 무어의 영향은 적어도 언어와 접근 방식을 인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CI 루이스의 실용주의적 관점이 살짝 가미된 것들도 있죠. CI 루이스는 1930년대와 40년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입니다. 실용주의 말이죠.

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상론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검증 원칙을 공리로 삼아 형이상학에 대한 간략한 재판과 처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이 지식에 독립적인 기여를 하려면 오직 분석의 실천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철학의 유일한 기능은 분석이다. 전통 철학, 특히 형이상학에서 나타나는 난제와 혼란을 해소 하기 위해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

그러니까, 그의 말을 빌리자면, 그게 그가 택한 방향입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도 잘 들렸고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죠.